

입체파의

모 / 든 / 면 / 을
볼 / 수 / 없 / 는
현 / 실 / 을 / 갠 / 다

물장으로

서양미술에

혁명

2012. 5. 15_
2012. 11. 25

불러오다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마티스가
살롱도톤에 출품된 브라크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의 덩어리'라고
말한대서 유래되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F . 제 1,2,3전시관
브라크와 피카소를 만나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 창시된
입체파는 평면의 캔버스 위에
견고함과 볼륨감을 표현하는 목표로 캔버스의 2차원성에
그림의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묘사해 캔버스 위에 구성함으로써
평면들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다.

모/든/면/을

입 체 파 의 등 장 으 로 서 양 미 술 에 혁 명 을 불 러 오 다

보/수/어/는

현/실/을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마티스가 살롱도톤에
출품된 브라크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의 덩어리'라고
말한대서 유래되었다.

껌/다

2012. 5. 15_
2012. 11. 25 /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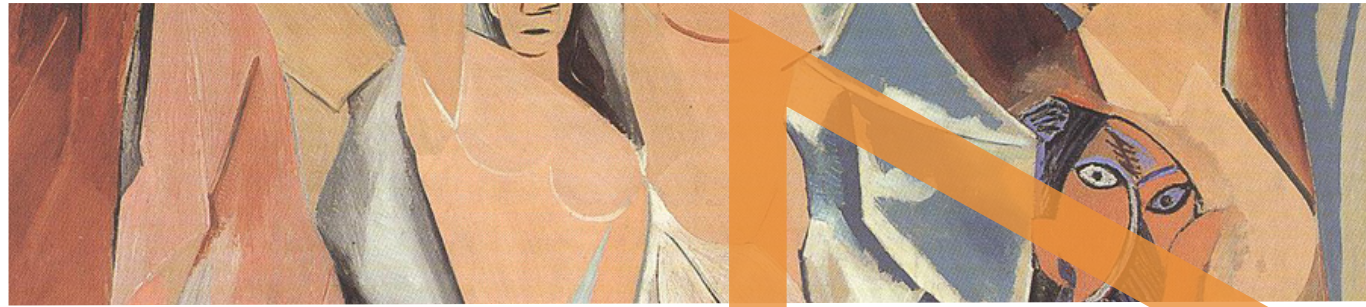
한가람 미술관

1F . 제 1,2,3전시관

2012.5.15_

2012.11.25 /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 창시된 입체파는 평면의 캔버스
위에 견고함과 볼륨감을 표현하는
목표로 캔버스의 2차원성에
그림의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묘사해 캔버스 위에 구성함으로써
평면들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다.



2012. 5. 15 _
2012. 11. 2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F . 제 1,2,3전시관

모든 면을
수 없는
실을 깬다
체파의 등장으로
양미술에 혁명을
러오다

모든 수
볼 수
현 실
입 체
서 양
불 러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마티스가 살롱도톤에 출품된
브라크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의 덩어리'라고 말한대서 유래되었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 창시된

입체파는 평면의 캔버스 위에

견고함과 볼륨감을 표현하는 목표로 캔버스의 2차원성에

그림의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묘사해 캔버스 위에 구성함으로써

평면들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다.